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pISSN 1229-781X / eISSN 2671-5759
기독교교육논총 제75집 (2023. 9. 30): 103-125
https://doi.or.kr/10.17968/jcek.2023..75.005

Explor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e Tasks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Duk-Lyoul Oh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Education Researc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tasks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To this en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trend of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the tasks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are reviewed. Peace education has expanded with the activation of peace movements and educational discourse starting from civil society, while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plan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and is moving toward the field of education practic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unification education that aspires for peace, the combination of the two fields has continued steadily, and research 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The direction and tasks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were proposed based on the tasks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d the trend of the times in the two areas to carry out the research purpose. For the sustainability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s a peace education should aim to foster peaceful citizens who take the lead in transitioning from a culture of violence to a culture of peace.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dissolution of the antagonist image. Second, activities that guarantee learners' subjectivity and autonomy should be carried out away from the top-down method in teaching and learning. Third, a curriculum connected to daily life should be formed.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Peaceful citizen

Received August 22, 2023 **Revised** September 27, 2023 **Accepted** September 28, 2023
Author : Duk-Lyoul Oh,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Education Research, ody9898@hanmail.net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통해 본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 탐구*

오덕열**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검토한 후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평화교육은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평화운동 및 교육적 담론이 활성화되며 영역이 확장된 반면,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따라 계획이 세워져 교육 실천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교육의 특성상 두 분야의 접목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에 당면한 평화통일교육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 영역의 시대적 흐름을 검토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기반으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쟁과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데 앞장서는 평화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적대자상의 해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에 있어 톱다운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상과 연결되는 실천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할 한반도 내의 평화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문화 조성에 전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주제어 》
통일교육, 평화교육, 평화통일교육, 기독교통일교육, 평화시민

▢ 2023년 8월 22일 접수, 2023년 9월 27일 심사완료, 2023년 9월 28일 게재확정

* 이 글은 앨런 스미스·강순원·오덕열(2020). 한국 평화교육의 비판적 검토.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초로 2023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3. 6. 10.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ody9898@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의 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통일교육 역시 시기적 전환과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북한 및 통일 문제의 지향점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통일교육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논리에 한편으로는 타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통일교육은 그 의미에 걸맞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객관적 북한관 정립'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의 기조였던 '평화·통일교육'의 명칭 변경과 평화를 소홀히 한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교육의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한만길, 2019, 136), 통일교육에 있어 평화 개념이 국가 차원의 공론화에 이르렀기에 그 온도차가 더 커 보이는 듯하다.

이렇듯 통일교육과 평화의 관계는 한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주제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평화'의 가치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평화'가 통일교육의 목표나 소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실천학문으로 변모할 때, 또 다른 해석들이 일어난다. 학습 상황이라는 교육적 공간 속에 평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더 나아가 통일과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이론적·실천적 결합 논의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편 기독교교육 분야에서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가 다소 있었다. 임창호(2019)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기독교교육 주요 학술지(기독교교육논총, 기독교교육정보, 복음과교육)에 게재된 논문을 상황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통일(평화)을 다룬 논문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탈북민 주제 연구도 11편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함승수 외(2022)의 연구는 좋은 시사점을 준다. 기독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화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탐구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구(함승수, 2022)에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로서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양금희(2016)는 '평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통합' 개념을 통해 남한 사회의 조화와 융합 또한 통일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며 통일교육의 재개념화를 꾀했다. 이와 같이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에 관

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통일교육에 관한 양적 확대만큼 평화교육에 관한 분석은 그다지 세밀하지 못했다. 대체로 '평화를 가르치는 행위'로 평화교육을 설정하거나, 통일과 평화를 동일 혹은 비슷한 범주로 정의하면서 통일교육이 곧 평화교육이라는 도식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교육사 및 교육제도 연구, 북한이탈주민 연구 등을 통일교육의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자연스레 평화교육의 논의에 함축되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이는 북한학이나 통일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지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검토한 후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 지점을 살펴보면서 통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기독교교육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해 나가며 통일 미래를 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Ⅱ. 평화교육의 시대적 흐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한반도 핵 위기, 세계적 기후 환경의 변화 등에 다른 위기감의 증가는 평화와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과 평화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수행된 평화교육 연구들의 양적 성장의 원인은 남북의 상호 교류 진척, 평화교육 단체의 활동 확대, 학교 폭력의 사회적 이슈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정지수·김경이, 2020). 이렇듯 평화교육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평화교육에서 주로 다루고자 했던 '전쟁 부재', '반핵'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조정아 외, 2019).

1. 평화교육의 형성과 발전: '통일'의 또 다른 얼굴

평화교육이 지닌 가치, 지향하는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평화교육은 1970년대부터 태동했다 볼 수 있다(오덕열·강순원, 2021). 세계2차대전 이후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평화교육은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인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박보영, 2005). 이에 따라 전개된 외국의 평화교육 이론 소개와 개념 확립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평화교육의 토대가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에 기반을 두는 평화사상이 많이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정환(1988)은 기독교·불교·유교의 평화론을 검토하며 한국적 평화교육을 제안했고, 윤응진(1990)

등은 독일 평화교육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해하며 관련 저술 활동들을 하였다. 오인탁은 기독자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서구의 평화교육사를 개관함과 동시에 기독인의 책임 등을 밝히는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평화교육을 전통적 평화교육으로 정의하면서 비판적 평화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대립적 개념이 아닌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했다(박보영, 200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필두로 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불온사상으로 취급하던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는 통일 운동을 펼쳐 나갔다. 1983년 NCCK는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일문제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시 정권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985년 일본 고텐바시의 YMCA 수련관인 '도잔소(東山莊)'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국제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문제협의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영은, 2017). 이어서 한국교회의 입장이 담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88선언)이 1988년 2월에 발표됐다(김동진, 2013; 이유나, 2010). 88선언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어려웠던 당시에, '남북의 신뢰관계 형성'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내며 평화통일운동의 초석을 다졌다.

평화통일운동은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는데, 평화적인 선언을 통해 반공·반북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냉전적 사고가 팽배하던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평화'라는 단어가 정파적 논리에 의해 해석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실천성까지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시기의 평화교육은 추상적인 평화사상이나 외국 자료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 운동을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지만, 교육적인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평화교육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영역(고병헌, 2006)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시기 평화교육은 '통일'을 제외한 다른 주제들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맹아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2. 일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평화교육

1989년 베를린 장벽의 와해로 상징되는 탈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린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기가 된다. 1987년을 축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독재 타도의 시기를 마감하며 저변이 확대된 사회민주화운동으로의 변곡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해방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사회적 관심사가 변화(조희연, 1993)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

이 '삶의 질' 문제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박보영, 2005). 이에 따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평화교육의 주제가 된다. 이삼열(1992)은 차이와 공존의 문제를 논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평화행위능력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김성재, 1993; 오인탁, 1995, 1997; 정영수, 1993)에 의해 평화교육에 관한 논의가 통일교육, 환경(생태)교육 등과 결합되며 탈냉전 시대 한반도 평화와 생명 존중의 개념들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반도의 반평화구조를 개념도로 제시하며 사회 심리적 통합, 구조적 폭력 극복, 아동 인권교육 등 글로벌 보편 주제를 평화교육에 접목시키는 공동작업의 결과가 발표(강순원, 2000)되었고, 평화교육의 체계적인 이론을 연구한 데이비드 힉스(D. Hicks)의 편집 저작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Hicks, 1988).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수행된 평화교육의 모습을 교사들의 시각으로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생산되었다(조정아 외, 2019). 이렇듯 1990년대는 '또 하나의 문화(1996)', '어린이어깨동무(1996)',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7)', '비폭력평화물결(1999)', '평화인권연대(1999)' 등 다양한 평화교육 단체들이 등장하며, 목적성이 담겨 있는 지속적인 평화교육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교육실천의 철학적·이론적 바탕이 형성되는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조정아 외, 2019).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급 학교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 평화교육은 각 주제들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평화역량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미약했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박보영, 2005).

3. 평화교육의 현재와 소결

2000년대 이후 평화교육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통일교육을 중심에 두었던 기존 모습과는 다르게 민족주의, 젠더, 생태환경, 내면의 평화, 학교 폭력 예방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상에서의 평화 문화 부재에 주목하면서, 건강·식량·안전 등 인간안보적 관점 및 초국가주의와 국제 평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성평등,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조정아 외, 2019).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인권'과 '평화'가 국가적 담론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평화교육단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전문성 있게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 평화교육은 지식 전달과 같은 교수·학습 방식을 비판하면서 삶 속에서의 실천을 주요한 가치에 두었다. 즉 평화역량 및 평화감수성 함양에 초점을 두면서 이질성 극복, 관계성 향상, 갈등 해결, 소수자와의 공존, 사회 정의 지향 등이 평화교육의 실천 영역에서 부각되는 것이다(박성용 외, 2015). 평화교육은 2000년대 들어 비로소 통일교육 기반의 평

화교육과 그렇지 않은 평화교육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가 안보를 배경으로 한 평화 담론 이외에 일상 속 비평화적 상황에 주목하고, 상호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방증한다.

최근의 평화교육은 실천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지향점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조정아 외, 2019). 앞서 살펴 본 평화교육의 다양한 가치들이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특히 공교육 기관을 주목해 볼만하다. 우선 국어 · 윤리 · 사회 · 역사 등 교과목을 통해 평화교육의 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강봉수, 2020; 강선주, 2012; 김광규, 2019).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회복적정의, 회복적생활교육 등을 다루게 되면서 각 시 · 도교육청 단위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었다(유영하 · 임현선 · 정주리, 2019; 홍봉선 · 남미애, 2016). 경기도의 경우,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하고, 2011년에 평화교육헌장을 발표하는 등 평화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예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이대훈 외, 2019).

전술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은 시민사회의 평화 운동과 교육적 담론을 통해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보니 국가적 차원의 기획 단계와의 만남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평화교육의 정의는 여전히 그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평화교육을 전담하는 특정 부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게다가 평화교육은 남북 관계의 변화, 학교폭력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증폭됐을 때 관련 연구 동향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인다(정지수 · 김경이, 2020, 83). 또한 시민사회에서 성장해 온 평화교육의 영역이 사회적 관심과 연결되어 순간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이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다양한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글로벌 평화에 주목하는 관점에서부터 내면의 평화에 초점을 두는 시각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의 실천 과제를 상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정의, 생태환경, 소수자 인권 등의 영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평화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한 과제로 꼽는 경우도 있다(김유리 · 김경주 · 이은혜, 2018; 이대훈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단 이후 국가적 차원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해 온 우리 사회는 '통일'과 '평화'라는 키워드를 연결된 관심 주제로 끊임없이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Ⅲ. 통일교육의 시기별 고찰

1. 승공 · 반공 기반의 통일교육

해방 이후 한반도는 여러 단체들과 정파들이 대립을 이루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측 지역은 UN의 감시 속에 총선거를 실시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북측 지역은 총선거를 반쪽짜리 선거로 부정하며,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 안정적이지 못했던 남북의 정부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갔고, 이에 따라 남한에는 반공주의적 논리의 기틀이 형성된다(박찬석, 2003). 또한 1950년 발발한 6 · 25 전쟁의 여파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은 커져만 갔다. 이후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분단의 고착화는 더욱 깊어져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철학이 더욱 뿌리내리게 됐다.

4 · 19 혁명(1960년)에 의한 이승만 정부의 붕괴는 새로운 국가 체제의 서막을 알렸고, 의원내각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시작은 민주정부라는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렸다. 그러나 당시 남한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친미 및 반공이념을 가속화시키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박찬석, 2003).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반공교육이 재논의 되기는 했으나, 제2공화국 시기 역시 창의적인 통일교육의 내용은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공화국의 정치 · 사회적 불안은 5 · 16(1961년)으로 귀결된다. 새롭게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중심으로 한 경제건설 논리를 내세우며,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정책기조를 추구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경쟁 구도는 남한 사회에 '승리'소망을 꿈꾸게 했으며, 정부는 반공주의 정신 함양을 중요한 기조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1961년)했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중학교에 「승공통일의 길」을 국정교과서로 제작(1963년)했다(한만길, 2001). 1968년 1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주의와 반공정신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반영했고, 1969년 「교련」을 고등학교 필수 교과로 만들기에 이른다. 그러나 1970년 광복절에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에서는 북한을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남북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연구소', '국토통일원'을 설치하며, 국가 중심의 통일연구를 시도하였다(박찬석, 2003).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북한을 이전과 다르게 공산정권으로 인정하며 반공교육에서 승공교육으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는 '호전적 반공통일교육'이라 볼 수도 있다(강순원, 2020).

전두환 정권의 출범은 1980년대 '변혁적 사회운동'과 그 시기를 같이 하게 된다(조희연, 1993). 분단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 속에서 강화된 이 운동은 보수적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학생운동 · 노동운동 · 통일운동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군부와 민주화 세력의 갈등기라 할 수 있는 전두환 정권 시기는 이념적인 공백 현상(박찬석, 2003)

을 보이며, 이전의 반공 및 승공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환원시켰다. 여전히 반공 이념을 국시로 삼았던 이 시기의 평화통일론은 '힘에 의한 안보로서의 평화'를 전제하였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통일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2. 안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노태우 정부는 비교적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갔는데, 이러한 시각은 1988년 「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7·7선언」은 북한을 동반자로 보고 남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함을,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과도기적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 단계를 구상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토대가 되는데, 북한을 동질성 회복의 문제로 바라봄으로 인해 '적'이면서 '동포'로 바라보는 이중적 대상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는 고취시키는 이중적인 통일 방침을 세우게 했다(박찬석, 2003).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내 개혁을 통한 내적 역량의 성장으로 민주·정의·복지·인간 존엄성 등이 실현되는 통일 국가를 목표로 삼았다. 이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 무력통일이나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천명했다. 1990년대 동구권 사회 붕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점교육 분야로 통일교육을 제시하는데 그 명칭을 '통일안보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보다는 '통일'에 더 큰 방점을 두며 적극적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석이 되었다. 또한 통일 이후의 한반도 사회에 대한 구상들을 통일교육에 편입시킨 의의도 있다.

3.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통일교육

1998년 수립된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및 통일교육에 큰 변화를 추구했다. 우선 통일은 남북이 당사자라는 선언과 함께 자주·평화·민주 등 3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전 정부까지 강조했던 민족의 동질성보다는 상호 불신에서 기인한 상호 간 이질화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대화와 타협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력의 결과 2000년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여러 분야에서 남북 교류는 활성화되었고, 통일교육 또한

새로운 철학을 기반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추구하였던 안보 중심 교육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으로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박광기, 2012). 또한 대북 및 통일 정책에 있어 김대중 정부와 맥을 같이 했던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공동 번영을 목표에 두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고, 2007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천명하게 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정권 교체 등으로 후속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통일교육은 철학적 토대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교육과 흐름을 같이 한다 평가할 수 있다.

4. 안보교육으로의 회귀한 통일교육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기조와 함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구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천안함·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5·24 조치'를 단행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일교육 역시 새로운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 2009년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및 초·중·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통일교육 핵심인력인 전문강사 양성에 집중했다. 결국 보수 진영에서는 균형적 입장이라는 환대를, 진보 진영에서는 안보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우려를 받게 됐다(송정호·조정아, 2009). 이와 더불어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되는 통일교육의 현실 역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중립', '균형' 등의 강조와 남북 관계의 현실 반영이라는 기조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 실상을 주로 다루게 되었고, 자연스레 안보에 관한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이전의 통일교육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이 정책은 지난 시기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정책이나 원칙 중심의 대북 정책 모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음을 전제하고, 이전 정부의 장점들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강조점을 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

를 준수하도록 견인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에 기반 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신뢰'를 기조로 하는 통일 정책은 '원칙'을 전제하면서 남북 교류에 일정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통일교육 현장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북한의 모습'이 강조되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는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개념으로 교육과정 안으로 편성됐으며, 이명박 정부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통일교육의 모습을 보였다(김홍수, 2014).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은 국가 안보의 확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통일교육의 원칙에 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평화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은 매우 약화되었다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며 교육지자체들 중심으로 포용적 평화교육 차원의 통일교육을 향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는 했다(강순원, 2020). 하지만 평화교육적 관점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중점 사안에서 밀려나 있었다 할 수 있다.

5. 평화교육과 대화를 시작하는 통일교육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를 표방하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북 및 통일 정책을 펼쳤다. 특히 2018년 발표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화적인 신년사를 시작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고,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도 개최되었다. 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여파로 남북 교류가 더 이상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철학이 반영되어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의 연결성을 만들어 내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했다. 실례로 이전 정부까지 발행했던 「통일교육지침서」의 명칭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변경하고 평화교육과의 접점을 만들어갔다. 이 발간자료는 기본적인 지식을 요약하여 정보를 전달하던 방식을 개편하고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홍보 혹은 편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존 지침서의 제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 학교 현장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음을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그러나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에 있어, '·'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조정아 외, 2019), 평화교육에서 다루는 교수·학습방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오덕열,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적 관점과도 연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강순원, 2019).

6. 통일교육의 현재와 소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육의 기조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가시적으로 표출하지는 않고 있다. 2023년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서 3종의 제목은 각각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으로 기존 2021, 2022년 발간했던 「한반도 평화 이해」는 없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평화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발간 당시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 협력과 대화 부분 등은 내용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라는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을 강조했다(이재호, 2023).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언급하는 평화의 개념은 이전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를 뿐이다. 지속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김소연, 2023)를 강조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통일교육은 다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은 정권에 따라 그 지향점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출범한 역대 모든 정부가 국가의 안녕과 안전한 한반도를 추구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통일교육 역시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순원(2020)의 지적처럼, 정부마다 평화의 개념을 각각 상이하게 설정함으로 인해 통일 정책의 결과물인 통일교육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그대로 통일교육에 반영되고, 공교육 기관인 학교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통일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일 및 남북 관계의 모습도 정권에 따른 특정한 정답을 요청하게 되고(오덕열, 2020), 획일화된 모습을 띄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언급되며 열린 사고와 다양성 인정, 비판적 시각 등을 통해 통일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김병연, 2020; 황인표, 2018). 이는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에서 출발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평화교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일교육은 오히려 정부의 뚜렷한 통일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끼쳐 교육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

Ⅳ.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1. 평화통일교육의 과제

남북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상대에 존재론적 고민을 품으며 동행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화교육은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평화운동 및 교육적 담론이 활성화되며 영역이 확장된 반면,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따라 계획이 세워져 교육 실천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실천과정의 성격적 차이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두 영역의 만남은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그동안 탐구되어 왔고 접목 지점을 만들어냈다. 특히 분단 시대의 통일 문제를 거시적 차원이 아닌 '나의 삶'으로부터 찾으려는 시도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정현백 · 김엘리 · 김정수, 2002)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부 통일교육원(현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이 연구총서는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남북 교류협력의 모습을 역동적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나의 삶', '우리의 문화'로 연결하여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에도 꾸준히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평화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심도 있는 논의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론적 내용을 다루는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강구섭, 2022; 박성근, 2023; 오기성, 2019; 하상섭, 2022). 반면 교육이 수행되는 실천 현장을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적다. 평화교육이 실천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장 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인데(오덕열, 2021; 정주진, 2015), 그렇지 못한 현실은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실천성을 담아내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개념 정리에 관한 논의가 교육 현장에서는 요구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개념화하다 보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정리해보면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지향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이라는 정형화된 틀거리 안에서 '평화'를 논의하거나, 평화와 안보의 공존, 평화 체제 구축 등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수자가 지닌 목적성을 학습자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있어 평화역량 신장을 중요한 학습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역량은 '갈등과 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이미경, 2019), '평화통일 감수성'(이인정, 2019) 등으로 정의되는데, 인지적 영역이 아닌 정의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법론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고정적인 지식 전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훈육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한다. 따라서 교육자와 비교육자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비판적 사유와 창조적인 대응력(이동기 · 송영훈, 2014)을 주요한 역량으로 꼽는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강하게 적용되는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담론들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이 지닌 당연한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지향점은 바로 비판적 평화교육과의 연결지점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관한 지향점을 평화교육의 근거로 가져오는 바, 통일교육은 개방적 토론, 비판적 성찰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김병연, 2019; 오기성, 2018; 장은주, 2020).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자기정체성) 형성부터 출발하여, 타자와의 공감,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깨달음),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행동까지 평화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적대성 제거 및 공포의 극복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례 분석이 전제됨(이동기 · 송영훈, 2014)을 피력하기도 한다. 평화교육은 상대에 대한 적대자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교육은 북한과 함께 일구어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그리며 미래를 구상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들어 다변화된 평화교육은 크게 통일교육과 비(非)통일교육으로 구분되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서로 다른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분단이 탄생시킨 폭력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자는 평화통일교육의 지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이 지닌 다양성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여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지금까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독교통일교육 역시 평화교육과의 만남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승수 외(2020)는 평화롭지 못한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개개인이 들어가 평화를 누리게 하고 상생하게 하는 것을 기독교평화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양금희(2016)는 기독교통일교육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통일'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조화와 융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응진(2012) 역시 기독교통일교육은

새로운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 이후에도 남북이 평화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의 문화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다(오덕열 · 강순원, 2021)는 측면에서, 기독교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도 평화시민자질(peace-oriented citizenship) 함양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위험 없이 살아갈 권리로서 '평화권'을 정의하는데,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의 문화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서의 문화를 말한다. 평화의 문화에서는 제국주의적 지배 및 자본주의적 착취,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해결 방안은 용인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적대화 하는 테러리즘이나 혐오와 차별을 지양해야 할 요소도 꼽고 있다. 결국 세계 공동체적 윤리를 기반으로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평화권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교육이 남북 대결 구도를 전제하게 되면, 경쟁 · 승리 · 흡수 통일과 같은 폭력적 용어를 담지하게 된다. 따라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쟁과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데 앞장서는 적극적 시민, 다시 말해 평화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적대자상의 해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기실 산산상설교의 '원수사랑'(마 5:43-48) 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을 단순한 적으로 규정하는 통일교육은 기독교교육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수도 이웃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 통일교육에 많은 울림을 준다(윤응진, 2012).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 바로 북한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적'과 '도움의 대상'으로 상징화하는 순간 적대자상의 형성과 함께, 가난한 북한 주민의 모습이 함께 투영되어 불쌍한 존재로 그들을 전락시키고 만다(오덕열, 2018). 적어도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소망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대자상 해체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화가 깃든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교회 통일교육의 방향(양금희, 2016)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 교수 · 학습에 있어 톱다운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윤철기, 2022).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교수 · 학습 과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통일은 곧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전제하고 그 당위성을 학습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수방법은 '은행저금식 교육'(Freire, 197

0)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만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통일은 다른 이에게 불편함으로 다가 올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누구나 동의하는 가치이겠지만, 역대 정부의 통일교육의 지향점 속에 드러나는 평화의 개념이 다르듯 개개인의 인식 차이로 인해 현재도 다양한 논쟁들을 생산하고 있다(김용신, 2023).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정의뿐 만 아니라, '통일'의 개념, 통일의 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오덕열, 2019). 이는 교수자가 생각하는 정답을 학습자들에게 암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통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미래를 탐구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학습자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평등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기독교통일교육 역시 의식화와 문제제기식 교육을 추구하며 교사와 학생을 공동의 탐구자로 삼아야 한다는 선행연구(함승수 외, 2019)가 있는 바, 교회에서의 교수·학습 문화를 제고해야 한다. 특히 교회 현장에서 대체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방식이 일회성 특강에 그치기에 교육 소재의 생성자로서의 학습자들의 성장을 주목하는 평화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에 관한 기독교적 담론 역시 교단이나 개교회 일부 성직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가르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가 함께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 놓고 한반도의 미래상을 공동의 지혜로 구상해 나가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셋째,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일상과 연결되는 실천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Z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통일에 관한 거대 이론이나 거시적 관점에 맹목적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공간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로 행위를 판단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자라나며 다양한 정보의 수용자이자 주체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정은이, 2020). 따라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될 때 학습의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결성에 있어 보였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시각차(한승호, 2022)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대별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임과 동시에 좋은 통일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맞물린 남북의 사례 등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시각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과거 휴전선 근처 솔잎혹파리 남북 공동방제를 통한 성공 사례(이범영, 2002),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남한의 피해상황과 갈등 사례(이용욱, 2022),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도 영농공정들을 이전보다 앞당겨 수행하고 있는 현실(로동신문 사설, 2023), 코로나19 위기 속 재자원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조선중앙텔레비죤, 2021) 등을 통해 삶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을 거대담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곁에 두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Ⅴ. 나가는 말

분단의 시간이 깊어지는 만큼 통일에 대한 소망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멀어지기도 한다. 개인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 구조의 그물 안에서 이정표를 찾지 못하게 될 때, 남북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타자화 되고 만다.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게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결국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생명 살림의 미학은 곧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된다.

평화는 전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윤리이다. 또한 평화와 만나는 교육은 비폭력과 관용이라는 토대 위에서 평등과 자유, 공존, 타자에 대한 이해 등을 수반한다. 그러나 과거의 통일교육은 국가의 당위적 목표 및 국민윤리라는 미명 아래 '올바르다'고 정의 내려진 정답만을 요구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과의 만남은 목표에만 도달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좁은 길을 변화시키고 있다. 통일을 향한 여정과 그에 따른 사회통합의 과정 등에 주목하며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파생되는 갈등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결국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 평화의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등이 통일교육의 토대가 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포착하고, 특정한 권위에 의해 정답이 내려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한 남북 국민 모두 평화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서의 가르침들을 평화적인 과정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론에 관한 고민은 지속된다. 하지만 하나의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들 듯 기나긴 기다림은 염원을 담아내는 평화교육도, 한반도 평화 문화를 담아내려는 통일교육도,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독교교육도 공히 이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통일 이후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할 한반도 내의 평화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결국 상호이해교육(박찬석, 2022)은 평화통일교육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평화는 통일의 결과가 아닌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의 문화 조성에 전진하는 길을 여는 과정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구섭 (2022).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 **동북아연구, 37(1)**, 41-74.

[Kang, G. S. (2022). A Study 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Gwangju Provinc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37(1),* 41-74.]

강봉수 (2020). 도덕과를 통한 제주4·3교육 방안모색.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2(1)**, 81-109.

[Kang, B. S. (2020). Exploring Jeju 4·3 Education through Moral Subject.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22(1)*, 81-109.]

강선주 (2012).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16**, 7-36.

[Kang, S. (2012). Educational Encounter of History and Museum. *Studies on History Education. 16*, 7-36.]

강순원 (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

[Kang, S. W. (2000). *Education for Peace & Human Right.* Seoul: Hanul.]

강순원 (2020). 한반도 평화시민성 교육담론: 분단시대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 시민교육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5(2)**, 1-46.

[Kang, S. W. (2020). Discourse on Peace-oriented Citizenship in the Korean Peninsula: Form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divided Society into the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Peaceful Coexistence Era.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5(2)*, 1-46.]

고병헌 (2006). **평화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Ko, B. H. (2006). Educational Thoughts for Peace.Seoul: Hakjisa.]

고영은 (2017). 한국교회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 641-667.

[Ko, Y. E.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of Korean Church. *Theology and Praxis. 54,* 641-667.]

김광규 (2019). 6·25전쟁 수업에서 '전쟁영웅'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회과교육연구, 26(2)**, 21-39.

[Kim, K. (2019). How to teach the 6·25 War Hero in History teaching.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6(2),* 21-39.]

김동진 (2013). 종교의 평화적 가치 발견하기: 간디와 88선언. **신학사상, 160,** 237-276.

[Kim, D. J. (2013). Finding the Value of Peace in Religions: Gandhi and the 88 Declaration. *Theological Thought, 160,* 237-276.]

김병연 (2019).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126**, 307-332.

[Kim, B. (2019). Implications of the Beutelsbacher Konsens on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Ethics, 126*, 307-332]

김병연 (2020). 통일교육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윤리교육연구, 56,** 251-279.

[Kim, B. (2020).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egal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56,* 251-279]

김성재 (1993). 민족통일을 위한 북한교육 이해. **신학연구, 34,** 109-138.

[Kim, S. J. (1993). Understanding North Korean Educ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Theological Studies, 34,* 109-138.]

김소연 (2023. 8. 19.). 尹 "담대한 구상 흔들림 없어… 압도적 힘으로 평화 구축할 것". 대전일보, https://v.daum.net/v/20230815105837997, 추출일: 2023. 08. 19.

[Kim. S. Y. (2023. 8. 19). Yoon, "The bold plan is unwavering... Build peace with overwhelming power". The Daejeonilbo.]

김용신 (2023).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국제지역연구, 27(1),** 33-54.

[Kim, Y. (2023). Meaning of Peace in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7(1),* 33-54.]

김유리, 김경주, 이은혜 (2018). **평화교육에 기반 한 통일교육 발전 방안**: 자체연구 보고서 2018-10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Kim, Y., Kim, K. & Lee, E. (2018).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Peaceful Education.* Seoul: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김정환 (1988). 평화교육학의 이론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1,** 1-28.

[Kim, J. H. (1988). Theories and Challenges of Peace Education. *The Journal of Research Education, 1,* 1-28.]

김홍수 (2014). 박근혜 정부 학교통일교육의 특징과 해결 과제 - 노무현·이명박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7,** 366-403.

[Kim, H. S. (2014).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school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omparison with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Youngsa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17,* 366-403.]

박광기 (2012).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Park, G. (2012). *Unification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박보영 (2005). 한국의 평화교육 연구사: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1,** 157-196.

[Park, B. (2005).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Peace Education Research in Korea since 1980'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1,* 157-196.]

박성근 (2023).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대학교 '통일교육론' 수업설계안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72,** 291-317.

[Park, S. G. (2023). A study on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plans suitable for the Jeju region - Focusing on Jeju National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heory' Lesson Design. *Tamla Munhwa, 72,* 291-317.]

박성용, 고인성, 권순정, 김은호, 문아영, 반은기 (2015). **평화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획: 네트워크형 시민평화대학의 가능성을 향하여.** 서울: 아름대운재단.

[Park, S., Ko, I., Kwon, S., Kim, E., Moon, A. & Ban, E. (2015). *Social Planning for Peace Practice: Towards the Possibility of a Network-type Citizens' Peace University.* Seoul: The Beautiful Foundation]

박찬석 (2003). **통일교육, 갈등과 분단을 꿰뚫는 평화의 길찾기.** 고양: 인간사랑.

[Park, C. S. (2003). *Unification Education, Finding the Way to Peace Through Conflict and Division.* Goyang: Ingansarang.]

로동신문 사설 (2023. 5. 13).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ko/index.php?MTJAMjAyMy0wNS0xMy1OMDAxQDExQDBA66qo65OgIO2emOydhCDstJ3sp5HspJHtlZjsl6wg66qo64K06riw66W8QDBAMQ====. 추출일 : 2023. 08. 17.

[Rodong Sinmun editorial. (2023. 5. 13). Let's concentrate all our energy and finish planting in season. Rodong Sinmun]

송정호, 조정아(2009).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 연구, 10(1). 165-187.

[Song, J. H. & Cho, J.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towards Unification and Improvement of Governance of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0(1),* 165-187]

양금희 (2016).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의 기독교 통일교육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46,** 231-263.

[Yang, K. H. (2016).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oward to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6, 231-263.]

오기성 (2018). 학교 통일교육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탐색: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5),** 565-586.

[Oh, K. (2018). Social Consensus on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5),* 565-586]

오기성 (2019).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도시연구, 16,** 121-153.

[Oh, K. (2019). The Direc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Rol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16,* 121-153.]

오덕열 (2018). 남북 교류·협력 시기 통일교육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통일교육원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1(4),** 239-275.

[Oh, D. L. (2018). A Critical Action Research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eriod.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1(4),* 239-275.]

오덕열 (2020). 문재인 정부 통일교육에 관한 평화교육적 고찰: 2019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33(1),** 47-71.

[Oh, D. L. (2020). A Study on the Peace Educational review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ocusing on 2019 'Visit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3(1),* 47-71.

오덕열 (2021). 평화교육 분야 질적연구의 현황과 과제: KCI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15(2),** 45-68.

[Oh, D. L. (2021). Current Status and Tasks of Qualitative Inquiry in Peace Education: Focusing on KCI Published Papers.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5(2),* 45-68.

오덕열, 강순원 (2021).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국제이해교육연구, 16(1)**, 33-65.

[Oh, D. L. & Kang. S. W. (2021). A Critical Review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Reconstruction into Peac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6(1)*, 33-65.

오인탁 (1995). 대학과 생명교육. **대학교육, 73,** 64-78.

[Oh, I. T. (1985). University and Life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73,* 64-78.]

오인탁(1997).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 (pp. 129-168). 서울: 오름.

[Oh, I. T. (1997).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Lee. Y. S. (e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pp. 129-168). Seoul: Orum.]

유영하, 임현선, 정주리 (2019). 회복적 정의 이론에 기반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개인상담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7(2)**, 1-22.

[Yu, Y., Im, H. & Jeomg, J. R. (2019).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Counseling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7(2)*, 1-22.]

윤응진 (1990). 서독의 평화교육론. **신학연구, 31,** 397-426.

[Yun, E. J. (1990). Peace Education in West Germany. *Theological Studies, 31,* 397-426.]

윤응진 (2012). 기독교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29**, 25-56.

[Yun, E. J. (2012). Richtung und Aufgaben der Christlichen Friedenserziehung für die Vereinigung Korea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9,* 25-67.]

윤철기 (2022). 한반도의 인권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법과인권교육연구, 15(3)**, 71-104.

[Yoon, C. G. (2022). New assignments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for Realization of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 From the View of Peace Education -.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15(3),* 71-104.]

이대훈, 김병연, 이슬기, 최하늬 (2019).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평화교육 정책 연구**: 서교연 2019-2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Lee, D., Kim, B., Lee, S. & Choi, H. (2019). *A Study on the Peace Education Policy for School Field Application*. Seoul: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이동기, 송영훈(2014).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2014유네스코 정책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Lee, D. & Song, Y. (2014).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y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Seoul: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이미경 (2019).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이 한국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2019년 통일 북한 교수 연구과제 논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https://cloud.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20247&mid=SM00000532.

[Lee, M. (2019).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Peace Education for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이범영 (2002). 금강산 솔잎혹파리 남북 공동방제. **수목보호, 7,** 25-36.

[Lee. B. Y. (2002). South-North Joint Control of Mt. Kumgang Pine Gall Midge. Tree protection, 7, 25-36.]

이삼열 (1992).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 (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pp. 265-294). 서울: 한길사.

[Lee, S. (1992). Philosophy and Practice of Peace Education. Choi, S. (ed.). *an understanding of modern peace ideas* (pp. 265-294). Seoul: Hangilsa.]

이용욱 (2022. 9. 5). 북한 황강댐 방류.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209052015015, 추출일: 2023. 08. 18.

[Lee. Y. W. (2022. 9. 5). Discharge of Hwanggang Dam in North Korea. The Kyunghyang Shinmun]

이유나 (2010). '88선언' 전후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통일운동과 제 세력의 통일운동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63-296.

[Lee, Y. N. (2010).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and the Unification Activities of Several Groups '88 Declaration'.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32,* 263-296.]

이인정 (2019).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62,** 1-24.

[Lee, I. J. (2019). A Study on the goal and content system of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sensitivity.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2,* 1-24.]

이재호 (2023. 3. 14.). 윤석열 정부, 통일교육에서 '평화'라는 단어 빼버렸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13540769705, 추출일 : 2023. 08. 18.

[Lee. J. H. (2023. 3. 14.). Yoon Seok Yeol government leaves out 'peace' from unification education. Pressian]

임창호 (2019). 3개 기독교교육 학술지 논문제목에 나타난 주제어 동향분석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13-43.

[Lim, C. H. (2019). Analysis of Thematic Trends within Academic Paper Titles in 3 main Korean Christian Education Journa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13-43.]

장은주 (2020). 한반도 평화교육: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교육적 준비. **동서철학연구, 95,** 289-314.

[Chang, E. J. (2020). Education for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Educational preparation for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95,* 289-314.]

정영수 (1993).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31(5),** 173-193.

[Tscheong, Y. S. (1993). A Study on Task and Perspectives of Peace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5),* 173-193.

정은이 (2020). Z세대가 선호하는 방송콘텐츠에 관한 연구: 20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8,** 141-181.

[Chung, E. (2020). A study on broadcasting contents preferred by Generation Z: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in their 20s among generation z.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58,* 141-181.]

정주진 (2015). **평화를 보는 눈**. 고양: 개마고원.

[Chung, J. (2015). *An Eye for Peace*. Goyang: Kamagowon.]

정지수, 김경이 (2020). 평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인격교육, 14(3),** 65-86.

[Jung, J. & Kim, K. Y.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eace Education: Based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2000 to 2020.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4(3),* 65-86.]

정현백, 김엘리, 김정수 (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총서 2002-03.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Chung, H., Kim, E. & Kim, J. (2002). *The Meeting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조선중앙텔레비죤 (2021. 10. 2). 재자원화기술경험발표회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vQdYobggdgU, 추출일: 2023. 8. 18.

[Korean Central Television. (2021. 10. 2). Conducting a presentation on the experience of recycling technology. Korean Central Television]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 (2019).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KINU연구총서 19-23. 서울: 통일연구원.

[Cho, J., Kim, E., Moon, A. & Yoon, B. (2019). *The Actual Conditions and Issues of Peace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tact Point with Unification Education*. Seoul: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희연 (1993). **한국현대 사회 운동과 조직.** 서울: 한울.

[Cho, H. Y. (1993). *Korean Modern Society Movement and Organization.* Seoul: Hanul.]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6).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8). *The Direction and Perspective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하상섭 (2022).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발전방안. **통일교육연구, 19(1),** 5-38.

[Ha, S. (2022). Development Plan for Peace ·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angwon Province. *Korean Journal of Reunification Education, 19(1),* 5-38.]

한만길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Han, M. G. (2001). *Theory and Practice of Unification Education.* Seoul: Kyoyookbook.]

한만길 (2019).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통일정책연구, 28(1),** 135-157.

[Han, M. G.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Policy Studie, 28(1),* 135-157.]

함승수 (2022).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71,** 305-340.

[Ham, S. (2022). Christian Educational Proposals for Revitalizing Research on North Korea's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305-340.]

함승수, 황철, 송일섭, 권형준, 정대훈 (2019). 평화교육을 통한 기독교 통일교육 방향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2,** 187-216.

[Ham, S., Hwang, C., Song, I., Kwoun, H. & Jeong, D. H. (2019). A Study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of Korean Churches through Peac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2,* 187-216.]

홍봉선, 남미애 (201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모형 적용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의 실행연구. **학교사회복지, 25,**

303-337.

[Hong, B. & Nam, M. (2016). Action research of restorative justice of school social workers to prevent school viol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5,* 303-337.]

황인표 (2018). 남북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사회적 합의 내용에 대한 일고. **도덕윤리과교육, 61,** 179-203.

[Hwang, I. (2018). A Research on the Contents of Social consensus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south Korea.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1,* 179-203.]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역). (2002).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 Penguin Books.]

Hicks, D. (1988). Understanding the field. D. Hicks(ed.), *Education for Peace.* London: Routleedg, pp. 3-19. 고병헌 (역) (1993).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Hicks, D. (1988). Understanding the field. D. Hicks(ed.), *Education for Peace* (pp. 3-19.). London: Routleedg,]